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http://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http://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http://japan.gnpnews.org)  
중국어판 [china.gnpnews.org](http://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1. 3. 14 ~ 2021. 3. 27 제243호



▲ 슬로바키아의 거리의 악사들. 제공: WMM

## 나의 기쁨 나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

거리의 악사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한다. 흘러나오는 멜로디가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연주자의 손끝을 타고 흐르는 더블베이스의 깊은 울림이 마음을 휘감는다. 연주자가 기쁨으로 이 자리에서 연주하고 노래한다면, 그 마음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이다.

그러나 조건과 상황과 관계 없이 진정한 기쁨을 주는 분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범죄한 이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바지가 벗

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추며 기뻐했던 다윗보다 우리는 더 큰 기쁨의 이유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기뻐하며 노래하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시편 100:2)  
[GPNEWS]

## 美입양기관, LGBT커플에 위탁... 대학, 동성애 반대 학생 정학

미국 최대 개신교 입양기관이 LGBT 커플에게도 위탁을 제공하는가 하면, SNS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시물을 올린 미국인 대학생이 정학 처분을 받는 등 미국 기독교 공동체의 세속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복음주의를 표방해온 '베다니 크리스천 서비스'는 최근 LGBT 가정에도 아이들을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또 동성애 커플들과 함께 일하지 않은 곳을 포함해, 모든 직원들을 교육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다니는 2019년 3406명의 위탁 가정과 1123건의 입양을 성사했으며, 전국 32개 주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에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미국 남침례회 차기 회장 후보인 알버트 몰러는 "(베다니는) 도덕적 혁명가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로 결정했다."며 "이 혁명가들이 현재 사회의 모든 개인, 기관과 학교, 종교 교단, 입양

및 위탁보호 기관에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동부 침례신학교의 다니엘 아킨 총장은 "문화적 압력에 대한 매우 실망스러운 항복"이라며 "아이들은 건강하고 성경적인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가 필요하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또 러셀 무어 남침례회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이번 결정에 실망했다."며 "이번 조치는 신앙에 기반한 고아 돌봄 사업들의 기존의 노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뉴욕 게네세오주립대학의 학생 오웬 스티븐스는 '내면에서 느끼는 것과 생물학적 상태는 무관하다'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후, 학교에서 정학통보를 받았다. 스티븐스는 작년 11월 '두 성별의 생물학'과 '좌파주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같은 주제에 대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다. 당신이 내면에서 느끼는 것과 당신의

생물학적 상태는 무관하다. 생물학은 바뀌지 않는다. 생물학은 매우 명확하고 이진법적이며 쉽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학 측은 올 1월 그에게 정학을 통보하고 "스티븐스의 행동은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자신의 편협한 견해를 벗어난 정체성이나 문화를 가진 개인의 고유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미국 사회에 네오막시즘에 입각한 이데올로기가 사회 전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성혁명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법안추진과 미디어와 IT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체주의 사회의 그림자, 대학사회에서 그동안 진행되어온 좌익 이데올로기가 미국 지식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때 미국교회가 더욱 복음의 진리에 집중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기도하자.  
[GPNEWS]



### 마음의 눈을 밝히사 (27)

##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을 하면 안타까울 정도로 상대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소중한 여가인지 간절한 마음을 알리고 싶어서 못 견뎌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쪽이 먼저 마음을 알리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본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웬만해서는 깊은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그 마음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열지 않고, 스스로 기꺼이 열어 보여주고자 해야만 그 본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서 못 견뎌 하십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너무나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알고자 하는 우리보다, 알려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더 크다는 것.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이 유추하거나 사색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린도전서 2:11) 하나님은 그분의 깊은 마음을 아시는 성령을 우리

에게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알려주려 하셨습니다. 영이 죽어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우리에게 역사의 모든 시간 동안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분의 본심과 복음의 깊은 비밀을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눈물겹게 알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므로, 만지고 느끼고 볼 수 있도록 그 아들을 통해 말씀 하셨습니다. 감동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토록 열정적으로 그분의 마음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일러스트=김경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 복음을 주



신 하나님의 깊은 본심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G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 전화**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옛일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허무하신가요?

전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316 전화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장난전화는 삼가주세요  
상담전화 ☎ 1670-3160

# 프랭클린 그레이엄, 기독교인들 평등법 반대 의사 표명 나서달라



▲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출처: 유튜브 채널 FOX News 캡처

미국 상원에서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의 '평등법(Equality Act)'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빌리그레이엄전도협회 대표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이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 규정하고 기독교인들에게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 표명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그레이엄 목사는 지난달 26일(현

시시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등법이 통과된다면 여성 스포츠계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화장실 기숙사 여성쉼터 등에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줄 것"이라며 "절실한 기독교와 함께 상원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해당 법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려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그레이엄 목사는 빌리그레이엄전도협회가 운영 중인 인터넷

넷사이트 '디시전매거진'에도 "평등법은 공공편의시설로 지정된 학교, 교회, 의료기관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부의 신념과 명령을 수용하도록 강요한다."면서 "교회와 기독교단체 등은 신앙과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는, 기독교 신념에 적대적인 사람의 고용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진에게 성전환 수술을 강요할 수 있어 의료 전문가의 양심을 박탈하며, 정부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대학에 '대학인가 거부' 등으로 위협을 가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해 나가고, 교회는 평등법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해 우리가 오랫동안 축복 속에 이어온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의 개입과 자비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평등법은 지난달 25일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 투표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 2019년에도 하원을 통과했으나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현재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50석 동석인 상태.

[GPNEWS]

# 중 유명 가정교회, 폐쇄 이후 또 예배 금지 통보

중국의 유명한 가정교회 사면 쉰스딩교회가 2019년에 폐쇄된 후, 지난 2월 24일에 또다시 실내 예배 금지 통지를 받았다고 크리스천투데이 리가 2일 보도했다.

쉰스딩교회 양시보 목사의 부인 왕샤오페이 사모에게 전달된 통보 문에는 양 목사가 교무국의 승인 없이 쉰스딩교회를 개척했으며 '종교 시무에 관한 규정'의 여러 조항을 위반했다고 기록돼 있다. 당국에 따르면, 이는 그들이 개척한 교회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이에 양 목사는 페이스북에 "2월 24일 설교하던 중 종교국 직원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 아내를 심문했다. 오늘 아내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처벌통지서를 받았으나, 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공로증명서"라면서 "제가 집에 없자 관리들은 제 아내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전했다.

국제기독연대(ICC)에 따르면, 쉰스딩교회는 지난 몇 년 동안 시밍구 종교국과 현지 경찰로부터 상습적인 괴롭힘과 압수수색을 당해왔다. 샤면에서 가장 큰 가정교회였던 쉰스딩교회는 지난 2019년 5월 강제 폐쇄된 후, 다른 장소에서 소규모 모임을 진행해왔으나 새로



▲ 중국 쉰스딩교회 입구에 집결한 정부 공무원들. 출처: bitterwinter.org 캡처

운 모임 장소도 당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금지됐다. 또한 종교 사무국은 경찰 부서, 국가보안기관, 지역관리사무소와 협력하여, 수색 영장이나 제대로 된 법적 서류 없이도 교회 소유물을 압수하고 교회 문을 폐쇄했다.

당국의 이 같은 압력으로 보통 교인 100명 이상의 가정교회들은 지국 산하로 등록해야 한다. 또 당국이 내세운 어떠한 조건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 수가 적은 가정교회는 정부가 운영하는 3자교회로 편입되는 타협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가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원

인이 됐다. 이에 종교와중국사회센터 양강 소장은 "새로운 신자들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는 대규모 교회 집회보다 소그룹 단위의 펠로우십 전도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중국 정부의 기독교 박해 강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공산정권에 순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옥죄고 짓밟는 일이 가속화되고 있다. 주님은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은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오히려 로마를 기독교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가져왔다. 진리는 결코 달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자. [GPNEWS]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 부르키나파소 기독교 어린이, 몇 년 만에 학교로 돌아가

부르키나파소 기독교 어린이 1104명이 테러리스트의 공격 이후 몇 년 만에 학교로 돌아가게 됐다고 3일 순교자의소리(VOM)가 전했다. 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은 지난 3년간 기독교인 마을을 공격해 4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강제로 쫓아냈다. VOM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사회의 하위층으로 전락하고, 기독교인들은 난민구호품에서도 배제되고 있다고 전했다.

예수님 때문에 터전을 잃고 교육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을 위해 돕는 손길을 허락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들을 박해하는 영혼들도 이들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보고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주시시오.

## 에리트레아, 기독교인 일부 석방... 교회는 여전히 공격 받아

에리트레아 정부가 최근 21명의 여성 기독교인 포로들을 석방했으나, 에티오피아 인근 티그레이 지역 교회들은 여전히 공격에 노출돼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일 보도했다. 작년 8월 이후 석방된 기독교인들은 171명에 이르지만 아직도 교도소에는 13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수감돼 있으며, 악습에서 발생한 대량 학살로 약 800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

성경만 소지해도 처벌을 받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에리트레아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섬기게 하실 그날을 속히 주십시오.

## 변희수 전 하사 사망에 시민들 "동성애는 속임수", "군인권센터 책임져야"

지난 3일 청주 자택에서 사망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23) 사건에 대해 주요언론들이 성전환자들의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인터넷 기사의 댓글 등을 통해 "젊은이들이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동성애·성소수자 옹호 그만하세요."라며 동성애의 문제점과 이를 옹호하는 집단의 책임을 지적했다.

아직 이 땅에 온전한 상식과 지식으로 깨어있는 시민들과, 십자가 복음으로 서 있는 교회가 그루터기처럼 남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언론들과 국가 행정 단체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을 멈추고 진실을 전하게 하시고, 더 이상 사탄의 거짓에 속아 이용당하는 죽음이 없길 기도합니다. [GPNEWS]

##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1년 3월 15일 ~ 3월 27일

3월 15일 ~ 3월 20일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3.15(10시)~16(17시) ▶강원 고성 / 동명교회(홍\*\*)010-3191-8622, 3.15~19(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3.15~19(14~17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3.15~20(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3.16(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3.16,18~20(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3.19(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3.19(13~17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3.19(10시)~20(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3월 22일 ~ 3월 27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3.22~26(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3.22~26(14~17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3.22~27(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3.23(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3.23,25~27(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3.25(10시)~26(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3.26(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3.26(13~17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3.26~27(09~21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010-4661-4039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10-8267-4365

기획 | 무슬림과 함께 사는 이야기 (1)

# 엄청난 아잔 소리,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무슬림

새벽-아잔 소리.

아직 해가 뜰 기미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이른 새벽. 고요하던 밤을 깨우는 모스크의 아잔 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여기저기서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기도회를 알리는 소리다. 잠을 깨 뒤척이고 있던 나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이제 막 기어다니기를 시작한 아들이 눈을 감고 잠에서 깨지도 않은 채 침대에서 꼼지락거리며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새벽 아잔 소리가 날 때, 아이는 자주 그렇게 기어다녔다. 그러다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질 뻔하기도 했다. 그러면 반사적으로 일어나 아이를 손으로 붙들기도 하고, 안고 기도하면서 다시 재우곤 했다.

X국, 우리 집 가까이에는 모스크와 기도처가 다섯 개가 있다. 그중 한 곳의 확성기는 특히 우리 집 안방 창문을 향해 아잔 소리를 정통으로 쏟아부었다. 그 다섯 곳에서 울리는 아잔 소리와 멀리서 동시에 들리는 아잔 소리는 그렇게 중요한 아침을 엄청난 소리로 깨우곤 했다.

이슬람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새벽 무렵 동이 뜨기 전에 시작, 정오, 오후 3시, 해가 질 때, 밤 9시 무렵까지 무려 하루 5번의 기도를 해야만 한다. 이들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다. 지켜야 할 의무이고 알라의 요구조건이다. 기도에는 '라카아'라는 패턴이 있다. 5번의 기도회 때마다 라카아 횟수



▲ 모스크에서 기도하는 무슬림들. © 복음기도신문

는 같거나 다를 때도 있다.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먼저 세정식을 해야 한다. 그것도 마음대로 씻을 수 없다. 순서와 방식이 정해져 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처럼 씻어야 한다. 무함마드의 삶을 기록한 무함마드 언행록 하디스에 기록된 것처럼 씻어야 한다.

### 아랍어로만, 가르침대로 하는 기도

기도 내용과 방식도 정해져 있다.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집게손가락을 귓속에 넣고 메카를 향해 '알라 위대하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무함마드는 알라의 선지자다' 라고 인도자를 따라 반복하여 제창해야 한다. 후반부에는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바닥에 닿게 절을 한다. 기도는 또 아랍어로만 진행된다.

이처럼 철저히 무함마드의 가르

침대로만 기도해야 한다. 사적인 기도는 따로 할 수도 있지만 권면하지는 않는다. 기도회 마지막 부분에 절하며 이마가 땅바닥에 닿을 때, 그 순간 개인적인 기도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 즉 무슬림들은 이렇게 무함마드에 절대 복종하며 기도한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도전을 받기도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아니 나는 어떠한가? 되묻게 된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중에 산에서 기도하셨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제자들까지도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본을 보여주셨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다.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

버지게 구하라고 알려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으리라고 하셨다(요한복음 15장).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구원받기 위한 의무가 아니다. 사랑받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언제든 아버지께 달려나가, 그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초대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라는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다.

무슬림들이 코란과 함께 그들의 삶의 원리를 기록한 하디스에 의하면, 새벽기도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어 빠지는 무슬림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무함마드는 장작을 모아 기도회에 나오지 않는 자들의 집을 불태울 것이라고 했다(마크 가브리엘, 예수와 무함마드, 210쪽, 지식과사랑사, 2009). 이는 단편적으로 이슬람의 기도의 복종을 보여주지만, 이슬람의 기도는 알라를 두려워해서 참여하는 것을 보여준다. 건강과 물질을 빼앗을까봐, 심판 날에 지옥에 갈까봐 등등... 같은 말로 반복하며 기도해야 하고, 다른 언어를 쓰는 무슬림이라도 기도는 아랍어로 해야 한다.

우리 딸과 아들이 그렇게 새벽 아잔 소리에 움직이고 뒤척이는 것을 보면서, 평생을 듣고 자라온 그 땅의 사람들이, 그 땅의 아이들

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불안정하게 자라고 있는지를 보게 하셨다. 다른 환경은 뒤로 하고서라도 일 년 내내 거의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날씨와 새벽부터 밤까지 거의 하루 종일 들어야 하는 확성기의 아잔 소리만으로도, 이들이 왜 그렇게 쉽게 목소리를 높이는 싸움과 헐기를 부리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고,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하셨다. 이 무슬림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자.

### 두려움에 있는 무슬림에게 예수님의 빛이 임하길

기도 | 오늘도 두려워서 기도하는 무슬림들에게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참 진리 되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의 빛을 비취 주십시오.

같은 말을 반복하며 중언부언 기도하고, 자기 언어도 아닌 아랍어로 기도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을 찾아가 주십시오. 그들의 기도와 경배를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이슬람 국가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돌봐주세요. 두려움으로 신을 찾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으로 기쁘게 주님을 경배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계속> [GPNEWS]

김민음(북아프리카 사역자)

기획 | 동성애의 위험성을 알자

## 에이즈 환자 수... 세계는 39.3% 감소, 한국은 892% 증가로 세계 기록

### 제2회 성과학 콜로키움, “에이즈 환자 1명 치료비 6억 4000만 원 전액 국고 부담”

에이즈는 진단 후 사망까지 6.7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에이즈는 40대 사망자가 가장 많다. 1998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전 세계에서 에이즈 환자 수는 39.3%가 감소한 반면, 한국은 무려 892%가 증가하는 기록적인 결과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감시자 역할을 감당해야 할 한국 대형 언론은 에이즈의 위험성을 알리는 보도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성과학연구협회가 주최한 제2회 성과학 콜로키움에서 전은성 교수(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 에이즈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이 질환의 위험성과 문제점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2009년 'BMC 감염질환' 논문에서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로 진단받은 3369명의 환자 중 사망자는 980명인데, 이들 가운데 진단 후 6개월 이내 사망자는 45%에 달했다.

또 에이즈는 다른 질병에 비해서 사망자의 나이가 젊다. 국민 평균 사망연령은 75~89세이지만, 전체 암환자는 70~84세로 5년 단축된다. 간·담도·췌장암 환자는 50~84세로 25년이나 단축되지만, 에이즈 환자는 이보다 무려 35년 정도 단축된 40대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에이즈에 이르는 HIV감염은 남성 위주의 성감염매개병으로 주된 경로는 남성간 항문성관계를 통해 일어난다. 우리나라에 남·녀간 에

이즈 발생비율은 2000년에 7.76대 1로 남성이 높았는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9년에는 17.9대 1로 2배 이상 높아졌다.

또 남성 발생자 연령대도 20~34세에서 압도적인 발생 현황을 보이고 있고, 20~34세의 남·녀 비율은 40.5배(남 527명, 여 13명)에 이를 정도로 남성이 압도적이다. 한국의 경우, 감염병에 걸린 환자의 나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발생자 중 18~19세 청소년의 92.9%가 동성·양성 성행위가 주된 감염경로였음이 드러났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매체를 통해 HIV/에이즈 기사를 검색하면 '완치 가능한 시대',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과 같은 제목의 기사로 에이즈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HIV/에이즈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에이즈 환자는 정부의 보험부담금을 100% 지원받고 있다. 보험부담금의 9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며, 나머지 10%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해, 에이즈 환자는 자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국가 유공자보다도 높은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에이즈 환자의 수명은 길어지고 한 달에 약 300만 원 이상의 고가 약값과 각종 진료비 및 부대비용은 계속 상승중이다. 2017년 에이즈 생존자에 대한 진료비 총액은 1016억 이상이 출연됐다. 이는 한국의 에이즈 환자의 압도



▲ 지난 20년간 한국에서 에이즈 환자수가 892% 증가했다. 출처: pex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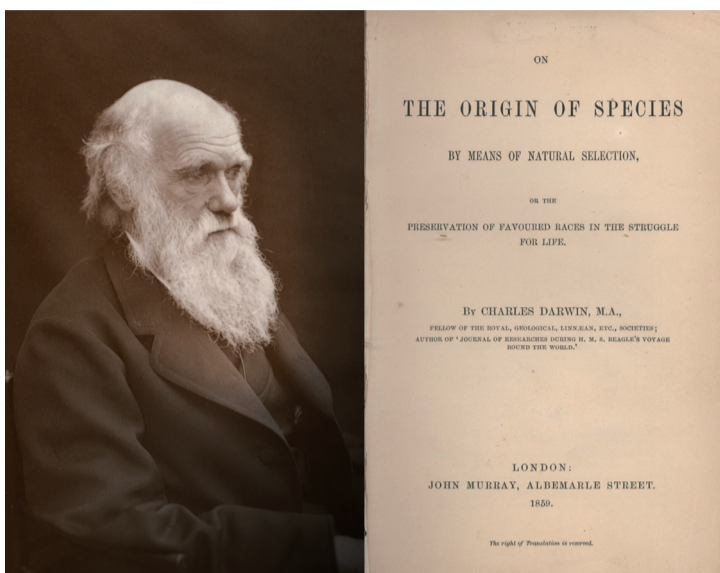
적으로 긴 입원기간 때문이다. 현재 30세 에이즈 환자 한 사람의 생애 비용을 추산할 경우, 진료비 1억 원을 포함해 총 6억 4000만 원에 가까운 생애 비용이 소요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환자의 증가추이를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국고부담은 끝없이 늘어나 국가 건전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GPNEWS]

기획 | 창조 이야기 (50)

# 공립학교 다닌 기독교인 75% 믿음 잃어… 진화론 교육 때문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사람들은 박테리아가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는 것을 진화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정보를 잃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기계공학자이자 응용 생물물리학자인 리 스페트너 박사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일으키는 변이는 '정보의 상실'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박테리아를 파괴하기 위한 항생제 스트렙토마이신은 박테리아 세포 안에서 '리보솜'이라는 부분에 작용하는데, 가끔은 변이가 리보솜의 구조를 변형시킨다. 변형된 리보솜에는 항생제가 결합할 수 없게 되고, 박테리아는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는 것이다. 비록 이 변이가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정보가 상실되는 것이지 얻어지는 게 아니다. 진화가 발생해 박테리아가 더 강해진 것이 아니다. 사실상 항생제가 없는 보통의 상태에서는 변이



▲ 찰스 다윈의 책 '종의 기원'. 출처: 위키미디어 캡처

되지 않은 다른 사촌들보다 더 약하다.

누군가가 동네에 와서 모두에게 수갑을 채워 감옥으로 데려간다고 가정해보자. 팔이 없어서 수갑을 못 채우는 사람이 있다면, 팔이 없는 것이 이로운 변이일까?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박테리아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은, 정보의 상실이지 정보의 습득이 아니다. 성경의 진리는 '자기의 종류대로 내리'고 말씀하고 있다.

1795년에 발표된 제임스 허턴의 책으로 사람들은 지구가 6000년 되었다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1830년에 발표된 찰리 라일의 책은 사람들로 홍수를 의심하게 했고, 찰스 다윈의 책은 창조자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1800년대 중반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들은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나

치주의를 만들어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한다.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딤후 6:20)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다. 진화론은 '종교'다. 히틀러는 이렇게 말했다. "내게 교과서를 조정하게 해주면 국가를 조정할 것이다." 교육은 수많은 사람들을 바꿔놓는다. 하버드대학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나도 거듭난 기독교인이었다. 15살 때 나는 근본주의적 종교에 큰 열심과 흥미를 가지고 남침례교회에 들어갔다. 내가 17세에 앨라배마 대학에 들어가서 진화론에 대해 들었을 때 나는 교회를 떠났다." 그는 대학 1학년 때 믿음을 잃었다.

그러나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스캇에게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그는 내게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었다. 선생님 사역이 내게 큰 축복이었다. 나는 진화론 교육의 위험성의 희생자이며, 고고학 수업을 받고 있는 고등학생들 중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의문을 가지고 낙심해 있었다. 그때 선생님

세미나를 듣고 다시 힘을 얻었다." 놀랍게도 역사상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진화론의 가르침 때문에 믿음을 잃었다. 자신의 삶을 바쳐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던 칼 마르크스는 오히려 대학에 가서 진화론자가 되었다. 스탈린 역시 기독교 학교에 다녔는데 다윈의 책을 읽고 무신론자가 되었다. 그는 자기 민족을 6000~1억 명 정도 죽였다. 다윈의 책을 읽고 진화론자가 된 앤드류 카네기 역시 그 일이 자신을 종교의 족쇄에서 자유롭게 했다고 말했다. "빛이 홍수처럼 물려왔고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신학과 초자연적인 것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진화의 진실도 찾았다." 카네기는 학교에서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을 확실히 하도록 수백만 달러를 지원했다. 그는 '국립과학교육센터' 등 많은 곳에 자금을 지원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중 공립학교에 다닌 75%가 대학에 입학하고 1년 후에 믿음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GPNEWS]

복음의 능력

## 그 사람처럼 믿으라

우리는 인류가 점진적으로 악화일로로 걸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 이 모든 이야기는 에덴동산에서 시작된다. 인류도 거기서 시작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환경 가운데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인간의 원수, 사탄이 들어와 의심의 씨앗을 뿌렸고, 그 후 인류의 역사는 악화일로로 걸어왔다. 이런 점진적 변화가 아담의 타락 이후 펼쳐진 인류 역사의 주제다. 그 후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끊임없이 애써왔다. 이는 결국 국 지옥 구덩이에서 끝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 사람들은 "왜 내게는 조지 몰러 같은 믿음이 없을까?"라고 자문한다. 조지 몰러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GPNEWS]

하나님을 향한 열정 (A.W.토저.2016)에서 발췌

## 선교 통신

### 미얀마 성도들, 쿠데타 반대하며 기도회와 평화 시위

군부 쿠데타로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미얀마 성도들이 기도로 평화를 위한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에 대해 이를 진압하는 군경의 무력진압으로 3일 하루만에도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 선교사에 따르면, 유엔과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에 대해서 나름의 해결책과 경제 제재 등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꿈쩍도 않고 신경쓰지도 않는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서방국가들의 경제 제재를 당하며 버텨온 터에 워낙 가난한 나라라 별로 잃을 게 없는 미얀마의 상황에서 이들은 계속 군부정권을 이어갈 것 같다고 한다.

오픈도어선교회에 따르면, 친주(州)의 치카 마을에서 200명의 성도들이 마을 공설운동장에 모여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다. 기도회를 마친 후에는 마을 주위에 모여 쿠데타에 항의했다.

오픈도어의 현지 파트너 데이지는 "양곤에서 칼라이와 친주까지, 젊은이와 노인들, 오순절과 가톨릭 할 것 없이 모두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시위를 지지하고 참여하기도 하지만 시위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한 크리스천들도 있다며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견해 차이로 오히려 불화가 생겨나지 않고, 성도들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를 요청했다.

미얀마의 친주, 카친주, 샨주는 크리스천들이 많은 지역이다. 특히 미얀마 군사정권 하에서 크리스천들에 대한 박해는 인구의 거의 90%가 크리스천인 친주와 카친주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미얀마 군부는 불교민족주의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해 오랫동안 인권침해를 자행해 왔다. 교회들을 폐쇄시키고 성도들은 구타당했다.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 린에 따르면 과거 군사정부는 항상 불교문

화와 전통만을 보호해왔으며, 이는 교회에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면서 "지금 또다시 교회에 대한 규제가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얀마의 크리스천 난민들도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카렌주의 정글 속에는 4000명 정도의 크리스천 난민들이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정치적 상황으로 이들은 더 쫓겨 못하게 됐다. 바고 지역 카야우가에는 선교사들을 포함해 500명 이상이 갇혀 있으며, 이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군부가 은행을 통제하면서 해외로부터 후원금 송금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미얀마에서 가

장 많이 쓰이는 신뢰성 있는 송금 앱, 전자지갑 서비스인 '웨이브 머니(Wave Money)'가 인터넷 차단·정지 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오픈도어는 현지의 어려운 성도들에게 후원금 전달과 구호품 전달이 중지되지 않도록 수단 확보가 절실하다고 설명하면서 군부의 집권으로 미얀마에서 교회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지 않고 친불교 민족주의 정세가 다시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기도를 요청했다. 또 다른 선교사는 군부가 국민들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나라를 위해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다.

미얀마는 올해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 18위에 올랐다. [G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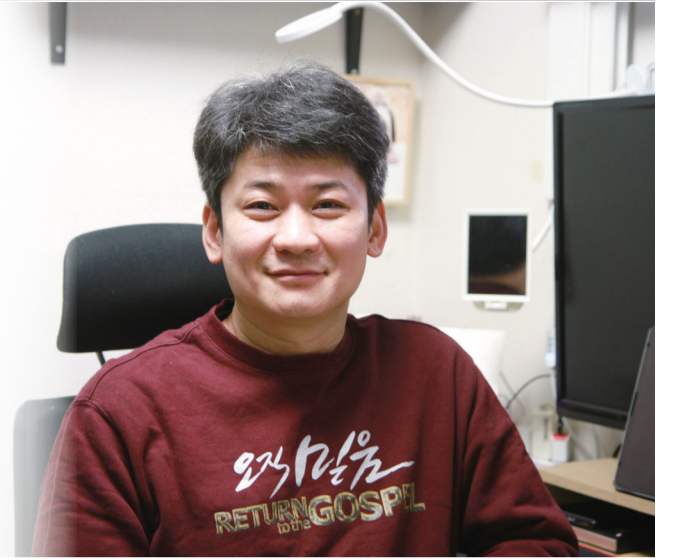


▲ 쿠데타 시위 현장에서 찬양하고 있는 미얀마 성도들. 출처: 유튜브 채널 국민일보 캡처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 “재일교포가 아닌 선교사로 일본교회를 섬기러 떠납니다”

일본의 부흥을 꿈꾸는 **원종실** 선교사(풀뿌리오키나와교회)



© 복음기도신문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원종실 선교사를 만났다.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도 받고 섬길 선교지도 정해졌지만 코로나 때문에 발이 묶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의 영혼들과 떨어질 수 없는 숙명적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어떻게 일본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셨어요?

“먼저 제가 일본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저의 할아버지는 재일교포라는 것이죠. 할아버지는 김치장사로 성공하신 분이었어요. 아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했던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는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됐어요. 그때 저의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면서 저와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 결혼을 반대했던 할머니가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는 바람에, 두 분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부모님은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시다가 결국 이혼하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동생은 부산에 있는 외할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했어요. 아빠는 서울에, 엄마는 다른 분을 만나 일본으로 가셨어요. 그때 제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아요.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성격도 내성적으로 바뀌고 외로움도 심했어요.”

- 어릴 때 힘든 시간을 보내셨네요.

“저는 공부보다는 운동을 하고 싶어서 축구부나 야구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제게 상처가 됐어요. 외갓집에서 많이 맞고 살았기 때문에 뭐 하나 사달라고 말을 못하고 있었다가 간신히 용기내서 꺼낸 말이었거든요. 그래도 운동이 너무 좋아 학교 끝나고 나면 야구부, 축구부 쳐다보느라고 5-6시가 되죠. 그러면 혼나는 게 무서워서 오락실에 가요. 오락실은 9시에 끝나니까 그때 집에 들어가면 혼나는 거죠. 그런데도 매일 반복했어요.”

### 방황하던 10대를 보내며

- 부모님도 안 계신 상황에 계속 말썽꾸러기가 됐군요.

“2년 후에 일본에서 친할머니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제서야 할머니는 부모님이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할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있는 서울로 올라왔는데, 아버지

는 지금의 어머니와 만나고 계시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결혼을 하시고 5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일본에 갔어요.”

- 일본에서의 시간은 어땠나요?

“일본어를 배워야했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잘해줬어요. 일본에서는 아무 간섭도 없으니 친구들과 놀면서 나쁜 것도 많이 배웠어요.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불량청소년이 됐어요. 중1 때 가출을 했어요. 오토바이도 훔쳐서 타고 다니고 불량 선배들이 멋있게 보여서 같이 집에도 놀러갔어요. 결국 가출했죠. 형들 집에 살면서 본드와 음란한 생활, 매일같이 집단으로 오토바이 폭주족 행렬에... 경찰서를 매일같이 갔어요. 너무 어렸던 저를 경찰이 기다렸는지 만 14세가 되자 바로 체포됐어요. 그리고 재판에 넘겨져 소년원에 1년을 가게 됐어요. 중3 때

20대 초반부터 이런저런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며 흥청망청 쓰기도 했어요. 또 결혼도 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사업이 망하면서 눈을 뗐는데, 이미 30대 중반이었어요. ‘다시 인생을 시작해야겠다. 죄짓지 않고 착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옛 모습을 지우고 살아야겠다고 했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그 무렵, 중학교 때 싸움을 잘했던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그것이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 친구의 자살, 삶의 전환점

- 어떤 충격이었나요?

“후배들에게 인기도 많고 남자다운 친구였어요. 일이 잘 안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잘나갔던 사람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창피해서 못살죠. 나는 그 마음을 알겠더군요. 저도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



▲ 복음기도신학교에서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 모습. 제공: 원종실 선교사

그곳을 나오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결국 또다시 들어갔어요.”

- 인생의 방황이 심하셨네요.

“소년원 안에서 배운 용접 기술로 사회에 나와 직업을 찾았지만 결국은 옛날 친구들을 만나서 놀다 보면 정상적인 삶은 살 수 없었어요. 18세에는 폭력조직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귀여움과 인정을 받았어요. 어린 나이에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후배들에게 존경도 받고, 폭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면서 살았어요. 남자다움, 의리 같은 것에 빠져서 싸우다 죽어도 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남자로서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5년 정도 있다가 조직을 나오게 됐어요.”

- 다행이네요.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나와서 할 일이 뭐가 있어야죠.

에 처음으로 자살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어요. 깨어나니까 몸을 벌벌 떨고 있었어요. 동생한테 전화를 했죠. 죽는 게 너무 무섭더군요. 강하게 보였던 제가 혼자서 죽지도 못하고, 제 연약한 실체가 드러나니까 부끄럽고 절망스러웠어요.”

- 위기의 순간이었군요.

“누구도 보고 싶지 않아서 일본을 떠나 다시 부산으로 왔어요. 간신히 생활을 할 때였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동생은 한국에서 신앙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제게 일주일만 시간을 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도 바쁘는데 하루라도 쉬면 놀러가야 된다면 아예 갈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늘 술을 먹고 생활습관도 좋지 않다 보니 디스크가 심해져서 못 움직이게 됐어요. 돈도 벌 수 없게 되면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도 되고, 다시 허전함에 빠지게 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아버지 묘를 찾게 됐어요. 새어머니가 생각나더군요. 어머니는 신앙이 좋으셔서 저를 만나면 늘 복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두 시간씩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효도 한 번 못하고 속만 썩여왔기 때문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효도하는 셈 치고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다시 일본에 가게 됐어요.”

- 어머니와의 시간은 어땠나요?

“어머니는 북방 지역의 아키다라는 곳에 살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그렇다 보니 집에는 규칙이 있었는데, 혼자 방에서 인터넷을 하면 안 되고 항상 같이 있어야 했죠. 핸드폰으로 쓸데 없는 것만 본다면서 못하게 하니 제가 대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2~3일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다른 갈 곳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제게 동영상 설교 메시지를 들어보라고 주셨죠. 처음에는 들리지도 않았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 갑자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더군요. 충격이 됐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 같았어요.”

-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용의 선교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이대로 가면 나는 지옥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무릎 꿇고 통곡을 했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군요. 그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저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잔소리해도 말을 안 들었는데, 제가 자발적으로 세상적인 것, 옷들 모든 것을 정리했



▲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 함께. © 복음기도신문

어요. 그때 마음은 날아갈 것 같고 나가서 외치고 싶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예수님을 알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때 앞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서원했어요.”

- 이후의 시간이 매우 궁핍해지네요.

### 인터넷으로 설교 들으며 회개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성경만 봤어요. 그때 허리 아픈 것도 낫기 시작했죠. 그리고 동생이 이전부터 추천해준 복음학교를 가게 됐어요. 복음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말이 어려워 60% 정도밖에 못 알아들었지만, 제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존재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참 감사했어요. 전 이미 주님을 위해 산다고 서원했기 때문에 복음학교를 참여하면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했어요.”

-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셨군요.

“이후에 교회에서 하는 훈련, 새벽예배, 저녁예배 빠짐없이 참석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듣고 싶어서 기도모임이라면 무조건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런 게 몇 개월 지나다 보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보게 됐죠. 다시 복음을 듣고 싶었어요. 복음학교는 처음에는 훈련생으로, 나중에는 섬김이로 참여했는데, 두 번째 복음학교에는 2015년에 참석했어요. 복음의 진리를 들으면서 무엇이 내 삶에서 문제였는지 깨닫게 됐어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은 계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제가 아니더군요. 다시 주님께 서원을 하면서 6개월 신앙 공동체훈련을 받았어요. 훈련 막바지에 일본에 교회가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시면서 내가 교회로 설 것과 신학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기도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GPNEWS]

Y.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강권적인 은혜의 복음 (3)

#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휴지처럼 짓밟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이에 이들의 멸시와 경멸의 눈총을 받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다. 태어나서 좋은 얘기 한마디 들어본 적 없이, 스스로 자기가 가치 있거나 소중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적 없이 풀죽어 살던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분이였다. 게다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는 세리 마태도 끼어 있었다. 그들은 모멸감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주옥같은 말씀을, 이 땅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천상의 향취가 나는 그 진리를 듣고 위로받고 싶었다.

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눅 15:11~12)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중 둘째는 자기 몫을 잘 챙기는 똑똑한 자식이였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했다. 유산은 그 아버지의 명예와 존재, 일생의 열매가 담긴 것이다. 어차피 다 자식에게 남기는 것이라 해도 아버지의 필생이 걸려 있는 유산 만큼은 함부로 손 댈 수 없는 것이다. 적어도 아버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식이라면...



일러스트=이예린

아버지 일생의 가장 소중한 것, 그 온전한 사랑이 쏟아 부어진 그것을 휴지처럼 짓밟아버렸다.

망할 때까지 해볼 것 다 해본 인간에게 동정이나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겠는가? 죄를 품고 뿌리면 악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가 쓰디쓴 대가로 찾아왔다. 선한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그럭저럭 모양이 괜찮은 자식 같더니, 고삐를 풀어놓고 나니 그 구정물과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서 세포 하나에도 선한 게 없다는 것이 역력히 드러났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2018년 4월) <계속> [GPNEWS]

‘나도 존재할 가치가 있구나.’  
주님이 이 말씀을 시작하셨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한 둘째 아들**  
그 아들이 유산을 받아낼 때에는 이미 딴 생각이 있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눅 15:13) 유산을 받고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은 그 재물을 다 모아

서 먼 나라로 갔다. 그 옛날 먼 나라로 갔다는 말은 다시 돌아올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일말의 애착이나 인간적인 정마저 싹 거두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생각으로 멀리 떠났다.  
떠나가서는 허랑방탕했다. 아버지의 명예와 존재, 일생의 열매를 가지고 병든 자아의 육적인 향연을 즐겼다.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주님 따르기에  
너무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옷이라도 입고 싶어요!  
작은 외마디라도  
이 옷의 글귀처럼 살고 싶어요!

교회, 선교단체, 학교 등 단체 주문, 제작  
소량부터 대량까지 주문받습니다.  
최소한의 마진은 적용합니다. ^^

문의 및 상담 | 010-8766-9129



하나님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문화 예술 선교단



**Blue Fish Company**  
Stage & Film

문화·예술의 부흥을 꿈꾸는 기도모임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수도권에서 모입니다.

**블루피쉬는**  
병에 담겨 있을 때는 평범한 물고기입니다.  
그러나 바닷물 속에서 햇빛을 받으면  
본래의 파란 빛을 발합니다.

**블루피쉬컴퍼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열방에 비추는 공동체입니다.


- 열방과 다음세대에게 드라마로 복음전파.
- 문화예술인들에게 복음전파.

문화·예술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할 분을 기다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엡 5:8)

문의 | 010-3272-6251

복음기도총서2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반응으로**

GPM  
최신간

김용의 지음  
값 9,000원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 길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죽음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때가 있다. 느헤미야가 맞닥뜨린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는 비상한 각오를 한다.  
보장된 미래를 기꺼이 포기하고 거칠고  
피 말리는 매일의 초조한 싸움 가운데로  
뛰어든다. 하지만 그를 환영하거나,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홀로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열정으로 다 폐허가 된 조국으로 간다.

복음과기도미디어

구입문의 |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boaz.co.kr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셨다!

신앙훈련을 받기 위해 훈련소에 입소한 후, 이번 달은 주방장으로 섬겼다. 훈련을 통해 복음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겼지만, 드러난 것은 믿음과는 상관없는 열심과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모습이였다. '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성경 속의 개인처럼 안색이 변하여 분노하는 나를 보게 되었다.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믿음으로 화합하면 된다는 것을 알지만,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았다. 안 믿어지면 복음이 가짜라고 떠날 건가? 아니, 결코 그럴 수가 없었다.

주방장으로 섬기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는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주님께 물었다. 여전히 나는 먹는



일러스트=고은선

것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는 말씀으로 어렵고 힘들 때 더욱 하나님 나라를 구했던 때가 생각났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때마다 그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기쁘고 평안했다. 이후 주님이 주신 떡은 참맛이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머리로는 아는 것이 믿어지고 내 심령에 '아멘'으로 고백될 때까지 주님 앞에서 믿음의 씨름을 할 것을 결단

했다.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 결론될 때까지 나아갈 것을 작정했다.

문득 행주를 빨며 '나 예수 생명으로 하고 있나?'라는 질문이 들었다. 성령님께서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하시며 예수 생명일 때, 아닐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존재가 예수 생명임을 한 찬양의 가사를 통해 알게 하셨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이미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셨다!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이

계신데 왜 육체의 소욕이 그대로일까 의문이 들었다. 그때 내 소욕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허락하신 상황과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나에게 부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실제 구하기 시작했다. 의로운 내가 발견되면 예수 생명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 생명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미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되는 것이었다. 맛보아 아는 느낌이 이런 것이구나! 하지만 내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잊고 주님의 마음을 계속 구하며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멈추지 말아야겠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인해 매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한다. [GPNEWS]

박찬양

## 그림 묵상



###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굴에 숨었다. 어두컴컴하고 음침한 굴 속 상황이 자신의 암담한 처지를 대변해주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굴에 숨어들어가듯 주님께로 피해 들어갔다. 깊은 어둠에서 그는 마음을 주께 고정했다. 믿음으로 하늘에 시선을 두고 자신을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주님을 붙잡았다. 이것이 마음의 확정이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시 57:7) [GPNEWS]

그림 이수진

## 부흥을 위하여

# 한국 정부, 고위급·핵심 탈북 인사들 방치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독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현 정부 출범 후 귀순한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대리대사, 류현우 쿠웨이트 주재 대리대사 등 고위급 외교관들은 이렇다 할 직업이 없다고 지난달 22일 조선일보가 전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류씨와 같이 정보 활용 가치가 있는 고위급·핵심 탈북 인사들을 국정원 내부나 국가안보전략연구

원(전략연) 등에 근무를 추천해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왔지만 현 정부 들어서 전략연은 탈북민 출신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와 함께 귀순한 김덕홍 전 당중앙위 자료연구실 부실장은 지난 연말 전략연 고문 자리에서 해촉됐고 자문비 명목으로 받던 생계비마저 끊겼다. 정부는 엘리트 탈북민 홀대 지적에 관련 예산을 줄이지 않았고 처우도 변함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정부의 탈북민 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

작년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비난하자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 2곳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탈북·인권단체들에 대해 사무검사를 진행했다.

코로나 사태로 북한 국경 봉쇄가 1년 남짓 되면서 북한 서민경제를 떠받치는 양대 기둥인 비공식 무역(밀수)과 장마당이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1일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전했다. 북한 장마당에 수입 상품이 사라지고 생필품은 오랜 기간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북한 곳곳의 장마당은 중국산 상품이 쏟아져 들어오며 그 규모가 커졌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1년이 지난 지금, 북한의 장마당은 중국산 상품 공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인권침해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란 야당의 비난 속에 '대북전단 금지법'도 강행처리했다. 탈

북민을 '남북 관계의 걸림돌, 장애물'로 보는 인식이 고위급 탈북민에 대한 홀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 인권과 탈북민 등 북한 정권에 거부

감을 줄 수 있는 큰 이슈가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현 정부가 엘리트 출신 탈북민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GPNEWS]

## 北, 코로나 국경 봉쇄로 밀수와 장마당 붕괴조짐



▲ 북한 양강도 혜산시의 장마당 모습. 출처: 자유아시아방송 캡처

급이 끊기면서 점점 축소되고 있다고 현지 주민은 말했다. 당국의 물리적인 통제로 장마당이 축소된다기보다는 장사 원천인 상품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설탕이나 밀가루는 주민들의 1차 소비 품이기 전에 각자 집에서 사탕, 과자, 음료수 등을 제조해 장마당에서 팔고 그 돈으로 식량을 구입해 생계를 이어가던 생산 원자재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시기보다 코로나로 인한 요즘이 더 살기 힘들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또 북한에서 차량 부품을

구할 수 없어, 택시나 승용차, 개인화물운송업체들과 공장 기업소, 군부대 소속 화물차량들이 고장이 나면 세워놓을 수밖에 없어 물품 수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소식통은 "군인들의 식량을 비롯한 후방물자 운송이 시급한 군부대들은 할 수 없이 낡은 목탄차를 꺼내 들고 바위고개를 넘나들며 후방물자를 운반하고 있다. 나무를 태워 연기를 내뿜으며 운행하고 있는 목탄차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다시 원시사회로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고 전했다. [G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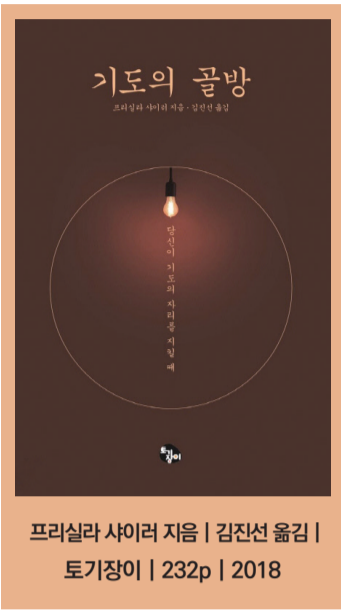


▲ 김덕홍 전 당중앙위 자료연구실 부실장(좌)과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 출처: 유튜브 채널 YTN 캡처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프리실라 샤이러 <기도의 골방>

# “기도가 생명줄이자 생활 방식이 되게 하라”



개 기도하는 일에 뛰어들자고 말하고 싶다. 기도는 더 이상 이 핑계저 이유를 대며 미뤄서는 안 되는, 반드시 싸워 승리해야 할 전쟁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영화 속 주인공 인물의 기도생활을 실제 자신의 생활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이점이 더욱 이 책을 눈으로만 읽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도록 다짐하게 되는 부분이다. 그는 ‘기도에 관한 책’으로서 이 책을 읽지 말 것을 권하면서, 자신의 기도 골방을 워 룸(작전실)으로 만들라고 당부한다.

###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개인 기도전략을 개발하라

우리가 기도할 수 없게 방해하는 적이 수많은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쉬지 않고 일하고 있기에, 기도하는 우리도 기도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적인 사탄은 삶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며 불안하게 하고 매일의 싸움에서 패배케하며 우리 자신의 처지를 한

탄케 하고 있다. 이때, 기도로 전쟁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수많은 개인 기도전략을 개발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전략을 가지라는 것이다.

### 예수님과 만남을 ‘적는 기도’

그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기도전략 중에 특별히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가지를 소개하고 싶다. 그가 권하는 방법은 ‘적는 기도’이다. 저자의 할머니는 평생 시간을 정해서 정확히 그 시간에 아주 중요한 친구를 만나듯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성실하게 가지면서 노트에 ‘적는 기도’를 해왔다.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하는 분을 한 순간도 잊지 않기 위해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이 기도의 방식으로 그 능력을 일상생활에서 누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각자마다 공격을 자주 받고 있는 취약점들과 여러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기도로 싸우며 승리를 취할 것을 구체적으로 도와준다.

책에서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10가지 전략을 살피며, 그 공격에 대항하여 맞서는 기도의 전략을 따라서 적고 기도로 싸우도록 안내하고 있다. 기도의 무기를 가진 우리에게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도록 공격한다는 점, 엉뚱한 적에게 무기를 겨냥하도록 초점을 흐리게 하는 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혼돈하게 하는 점,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고, 두렵게 하고, 거룩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점,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점들이 사탄의 주된 공격 전략들임에 정말 공감되었다.

“기도를 생명줄이자 생활 방식이 되게 하라. 가슴에, 손바닥에, 그리

고 쪽지에 말씀을 적는 일을 계속 하라. 그 기도와 말씀을 벽에 붙이고 책상 앞에도 붙여 두라. 보고 싶은 곳이면 어디라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지 붙여두라. 그렇게 해서 마음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엡 6:11)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골방에서 기도의 싸움을 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우리 마음을 돌이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싸움’을 하기로 뜻을 정한 자들에게 이 책은 실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할 것이다. 전쟁 중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전략적인 기도로 싸우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며 견고케 하실 주님을 찬양한다. [GNNEWS]

정준영 선교사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 신학대학교 신학과 전면 미달 사태가 말하는 것

올해 한국 신학대학교 신학과 전면 미달 사태라고 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쓰나미처럼 덮친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예고된 현상입니다. 신학대학교들이 수시-정시-추가 모집-신입생 충원율 99%를 채워야

이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칠 경우 바로 재정지원 대학교에서 제외가 되고, 다음 입시 때에 고3 입시지도 교사가 학생 추천에 이 점수를 반영합니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면 학생에게 불이익이

지 않고 대학 전체 미달 인원을 보므로 미달률이 높은 신학과는 대학교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한편으로는 신학과가 타과를 갉아먹는 원인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과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합니다.

신학과 교수 수를 줄이려고 하지 않으므로 진퇴양난이 됩니다.

### 신학이 한계와 틀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학과 모집이 안 되고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 하는 점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쇠퇴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신학을 퇴출시키시려 하십니까? 미국의 신학교는 번성합니까? 필자의 UC 버클리과 코넬대학교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세계 학문 정상 토론 무대에 신학교가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학이 한계와 틀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와 좌파도 기독교를 본 뜬 커뮤니티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최근 트랜스 커뮤니티(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에서 신학의 임무를 맡아야 합니다. 신학교가 특정한 사람을 택해서 전문가로서 성직을 수행하게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복음 공유를 하고 다양한 은사를 개발하게 하여 전 세계적인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GNNEWS]

<P 교수>



▲ 한 신학교 교정. 이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출처: 유튜브 채널 CTS뉴스 캡처

하는데 못 채우면 감점이 됩니다. 추가 모집을 하는 것 자체가 대학교 이미지에 리스크를 줄 수 있지만 미달 사태가 주는 타격을 감안해서 추가 모집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채우지 못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오므로, 고3 입시지도 교사가 그 대학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악순환 때문에 학생모집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문을 닫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과별 미달률을 보

신학대학교에서 신학과 교수들은 타과보다 교수 수는 많고 미달률은 높으므로 교수들이 나가든지 타과로 전과를 해야 하는데, 전공상 타과에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 정체성 유지 차원에서

####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자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 후원자 명단

2021. 2. 18 ~ 3. 3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강혜선 김애심 김정희 김혜신 노은옥 박경희 박숙자 박신희 박현숙 안수경 오세주 우 석 윤경석 이미영 이상연 이성현 이영옥 이은주 이종훈 이주선 이준진 이진희 장근혜 조명숙 조희광 차익수 최점옥 하은숙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목자교회 김화제일교회 반석중앙교회 시흥교회 선한목자교회 시은좌교회 주나임교회 안양구루터교회 열매교회 신한테크 오보평강교회 주만교회 처음사랑교회 화천중앙교회

####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채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